
2024년 시무식 신년 인사말씀

2024. 1. 3.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

사랑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,

새해,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

새해 첫 날이 좋은 것은

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

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

올해는 갑진년(甲辰年)으로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.

푸른 용처럼 힘차게, 높게 도약하여

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지난 한 해는 우리 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

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

흔들림 없이 차분히 맡은 바 업무에 임해 주신

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

많은 일을 해내었고, 괄목할만한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.

직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해

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올해는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

가시적인 성과 창출이

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.

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

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

각 부처가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.

음년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
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

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
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,
우리가 해결해야 사회 곳곳의 부패와 불공정,
집단갈등과 빈발민원, 국민 생활 속 민생고충과 불편 등
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.

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.
골드만삭스는 2024년 경제전망을 예측하며
“가장 힘든 시기는 지났다.”고 하였습니다.

희망찬 예측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
삶의 질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
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권익위가 앞장서서
나가야겠습니다.

특히 올해는 국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
현장중심, 국민중심의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
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늘 현장에 질문과 답이 있다는 자세로
고충민원과 집단갈등의 해결과정에서
현장을 수시로 찾고
내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
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, 정부대표 소통플랫폼 운영기관으로서
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또 더 크게 듣고
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
즉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도
지속적으로 힘써주시고
국정과제인 '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'을 위한
후속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이 공감하는 청렴과 공정사회 확립을 위해서도
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.

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고
지방현장의 청렴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
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
세심하게 살펴, 현실과 괴리된 법령을 정비하고,
한단계 도약된 청렴정책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
노력해 나갑시다.

아울러,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렴연수원의
인적, 물적 인프라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
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저는 작년 초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

법과 원칙,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
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

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
국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하고
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
노력하겠습니다.

권익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
저의 진심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라며,
올 한해가 우리 권익위와 권익위 가족 모두에게
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
바랍니다.

위원장님께서도 부재중이고,
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있지만
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는
대통령님 말씀과 같이
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한마음 한뜻으로
해결해 나갑시다.

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
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

2024. 1. 3.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